

경제 움직이는 '큰 손'으로...MZ 세대가 뜬다

임직원 절반 20~30대 광주은행 근무복 없애고 사복 근무 롯데백화점 광주점 '영 MVG' 회원 신설 MZ 소비층 잡기 나주 혁신도시 공공기관들 젊은세대 의견 반영 기구 신설

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아우르는 'MZ 세대'가 지역 경제에 주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체에서는 MZ 세대와 소통을 넓히며 경영 전반에도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통기는 '큰 손'이 된 MZ 세대를 겨냥한 다양한 판촉을 벌이고 있다.

3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근무복 제도를 폐지하면서 1600여 임직원 모두 사복을 입고 근무하고 있다. 근무복 폐지는 본점 뿐만 아니라 지점을 포함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광주은행 노동조합은 올해 초 설문조사를 벌여 유연한 조직문화를 만들고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근무복 폐지를 권의했고, 사측은 이를 받아들였다.

문민선(33) 광주은행 계장은 한층 자유로워진 분위기를 장점으로 꼽으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그는 "근무복을 입으면서 생겼던 '행원'에 대한 선입견이 차츰 개선되면서 더 신뢰가 간다는 고객들의 반응을 들을 수 있었다"며 "자율 복장으로 수평적 근무환경을 만들면서 고객 상담 때도 힘이 실렸다. 환복 시기를 절약할 수 있는 건 다행"이라고 말했다.

광주은행은 임직원 절반 이상(55.3%)이 20~30대, 이른바 'MZ 세대'일 정도로 세대 교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체 임직원 1645명 가운데 20대는 13.3%(218명), 30대는 42.0%(691명)에 달한다. 전 직원을 성별로 따지면 남(837명)과 여(808명)가 비슷한 비율로 나뉘지만, 20~30대는 여성(550명)이 남성 직원(359명)보다 53.2%(191명)이나 많다.

광주은행은 이처럼 활동 주축으로 떠오른 'MZ 세대'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수평적 대화, 친여성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송종욱 은행장이 직접 3차원 가상공간 '메타버스'에서 MZ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자녀돌봄 10시 출근제' 등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MZ 세대의 위력은 이들의 구매력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주식 거래와 부동산, 아트 테크, 리셀러(재판매) 시장 등에서 20~30대 비중은 빠르게 늘고 있다.

전국에서 '평균 구매 연령이 가장 높은' 백화점 중 하나로 꼽히는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난 7월부터 1980~2000년생을 대상으로 한 '영(YOUNG) MVG'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영 MVG 클럽은 20~30대 사이에서 중요한 가치로 꼽히는 '오늘 입은 옷차림, 오늘의 패션'(OOTD)을 내걸었다. 회원에게는 무료 커피와 식당·패션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한다.

모바일 앱 모집을 통해 모인 광주지역 영 MVG 회원은 500명이 넘었다.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롯데백화점 광주점 10~30대 고객 소비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9.1%나 증가했다. 이들 젊은층의 소비액 가운데는 해외명품(36.9%)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가전·가구 등 리빙(26.3%)이 뒤를 이었다.

이승섭 롯데쇼핑 과장은 "최근 점포 주변 신규 주택단지 수요를 잡기 위해 대대적인 개선공사를

벌인 결과 신혼부부 등 20~30대 구매 비중이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오로지 나를 위한 '가치 소비'를 중시하는 젊은 소비자에게 이들의 소비액 절반은 명품과 가전·가구가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은 MZ 세대 직원들의 의견을 경영에 반영하기 위한 조직 기구를 신설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정기적으로 MZ세대 소통협의체 'TP 커넥터즈'와 경영진 간 온라인 회의를 열고 있다.

'TP 커넥터즈'는 1990년생부터 2003년생 직원 5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달까지 세 차례에 걸쳐 주병현 이사장 등이 참여한 회의에서 익명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한국전력 MZ 세대 직원들은 '주니어 보드 혁신원정대'라는 이름을 내걸고 활동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인사 2~5년차 '주니어 사원' 125명이 힘을 합쳐 'KEPCO의 뉴노멀, MZ가 왔다'라는 책을 펴냈다. 혁신원정대는 여러 세대 간에 일어난 경험담을 나누고 다음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솔직한 마음을 책에 담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지역 경제현안 연구논문 공모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포스트 코로나' 등 지역 경제현안을 다룬 연구논문을 공모한다. 한은 광주전남본부는 오는 17일까지 연구용역 계획서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연구계획서 등 자료는 전자우편(gwangju@bok.or.kr)과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해당 용역비는 2000만원 안팎 지원한다.

연구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역 경제의 주요 이슈(인공지능(AI), 헬스케어 등 미래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금융변화와 지역 금융의 향후 발전 방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이 있다.

기후변화가 지역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다른 주제도 가능하다.

연구는 내년 상반기 중 6개월 동안 한국은행 직원과 공동으로 진행한다. 선정된 외부연구자에게는 주저자(제1저자)로서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최종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책임이 주어진다.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지역경제 및 관련 분야 전문가라면 응모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코스피 3000선 붕괴

미 FOMC 경제감에 1%대 하락

코스피가 1% 넘게 하락하며 다시 3000선 아래로 내려갔다.

3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37.78포인트(1.25%) 내린 2975.71에 장을 마쳤다.

전날 증가 기준으로 서울 만에 3000선을 회복한 지수는 이날 다시 3000선을 밑돌며 마감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앞둔 경제심리가 커진 가운데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까지 급증하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하는 모습이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7.2원 오른 1181.6원에 마감했다.

전날 5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로 전환했던 외국인은 이날은 4501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기관도 4223억원 매도 우위를 나타낸 가운데 개인은 8443억원어치 순매수하며 외국인도 기관의 매물을 고스란히 받아냈다.

이날 상장한 카카오페이는 공모가(9만원)보다 114.44% 높은 19만30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시총 13위에 올랐다.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4.44포인트(0.44%) 내린 1005.00에 마감했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975.71 (-37.78)
↓ 코스닥	1005.00 (-4.44)
↓ 금리(국고채 3년)	2.036 (-0.002)
↑ 환율(USD)	1181.60 (+7.20)

위니아담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김치 2000kg 전달

위니아담채(대표 김혁표·사진 왼쪽)는 지난 2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담채식품이 생산한 '건강담은 김치' 2000kg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일환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나눔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니아담채는 올해 4회째 '광주사랑 나눔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매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물품을 후원하고 있다.

김혁표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지역 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ESG 경영 실천을 위해 다양한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니아담채는 매년 생산공장이 위치한 광주지역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한전, 재생에너지 발전 수용성 향상 기술 개발

2025년까지 550억원 투자

한국전력은 재생에너지 발전의 전력계통 수용성을 높이는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제주도에서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에 전력수요보다 전체 발전량이 초과하는 과잉 상황이 지속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한 것이다.

발전량 과잉 문제로 제주도에선 재생에너지 발

전을 인위적으로 감축하는 횡수가 대폭 증가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다.

게다가 향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증가할수록 출력 제어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전은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25년까지 총 550억원을 투자해 계통 안전성 문제 해소를 위해 전력

계통에 관성을 공급하는 기술과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정확도 향상 및 출력 제어 기술, 주파수급락을 막기 위해 설치된 에너지저장소(ESS)를 활용해 비용 효과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기술 등 3가지 주요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내년 1월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공동연구할 협력기관을 선정하고 내년 2월부터 연구에 본격 착수한다.

또 2024년에는 서제주-한림 지역에서 현장 실증을, 2025년에는 제주 전체 계통으로 확대한 뒤 이후 육지 계통에도 순차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Card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초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NH가성비국민건강보험 2004
(무배당)

가성비를 갖춘 합리적 선택!

심장질환 + 뇌질환 2대 혈관질환! 든든하게 준비하기! 진단비와 수술비를 동시에!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안한 환전·해외송금까지 서비스 우대 적용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운암백삼지점 062)529-5335~6	쌍촌지점 062)381-6551~2	유동지점 062)512-1984~5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운지점 062)528-2640~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농성지점 062)361-4472~4	운암지점 062)527-3295~6	버들지점 062)381-1971~2
용산지점 062)526-0222~3	화정지점 062)372-0421~3	동림지점 062)513-8521~3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천지점 062)371-2772~3
지평지점 062)381-8212~3	로컬푸드직매장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